

詩誌

종 소 리

제 108 호

2026 년 10 월 가을호

시지

종 소 리

108 호



2026 년 가을호

(108 호)

차 례

《잘 가》	진 승 원 (4)
도찌기 은어매운탕	김 성 철 (6)
《함께 합시다!》	김 명 혜 (8)
해바라기밭에서	리 유 실 (10)
일흔을 생각하다	서 정 인 (11)

자 나 오 사 나 는 / 자 카 바 바 가 포 사 는 흥 나

언니	허 옥 녀 (14)
비 개인 날에	리 방 세 (17)
내가 앓던 자리	최 령 화 (18)
어머니의 코고는 소리	심 달 야 (20)
공기봉지	최 유 화 (22)
마이즈루향을 찾아	김 성 순 (24)

자전거	리 일 렬 (26)
또다시 찾아오는 그날을 그리며	배 가 나 (28)
게	서 정 인 (30)
좀 기다려	김 애 미 (32)
8 시 25 분	강 소 원 (34)

$\pi \perp O \perp \pi \perp \varepsilon \mid \pi \parallel B \parallel \gamma \Pi \vdash \varepsilon \cong \perp$

할배는 1 기생 나는야 62 기생	허 옥 녀 (36)
소식	박 태 진 (38)
빨래를 하며	리 려 영 (40)
농악	채 덕 호 (43)

《잘 가》

진 승 원

하얀머리 할아버지가
병글거리신다
빠스정류소에서
강뚝길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나》
《숙제공부 잘해라》
보드라운 소리가 좋았다
미소어린 눈길이 좋았다

10 점 따면 칭찬해주시고
잘못하면 아차 아쉬워라
다음 따면 된다고 감싸주셨지
내 초급학교 6 년간을

졸업하는 날에는
땃땃해라 넌 조선사람이야
머리 쓰다듬으시며 《잘 가》
교문앞에서 내려주셨다

전학을 한다고 지방 떠날 땐
건강해라 잘 배워오라 기다릴게
어깨 툭툭, 웃으시며 《잘 가》
길섶에서 손저어주셨다

모교교원이 되어 부임한 날
그립던 지부위원장께 인사 올리니
《잘 왔다》 잡아주신 손
눈물이 펴 돌았었지

믿음일가 기대일가
자래우시려는 사랑을
못 잇는다
몸속 깊이 새겨진 고마움을

벌써 일흔해
지금도 가끔
하얀머리 할아버지가
병글거리신다

한발짝 내디딜 때면

도찌기 은어매운탕

김 성 철

매운탕도 보통 모운탕이 아니라네
굽이굽이 간또를 누비는
《기누가와》서 금방 잡은 은어 통채로 끓인
듣기도 보기도 드문 은어매운탕

멀리 지바현에서 새로 온 본부위원장
처자를 두고 온 그가
자전거부터 먼저 구했다는 소식
동포들은 무심히 스쳐보내지 않아

一새 위원장이 어련하겠소
一어디 한번 만나보자 새 위원장
벌써 사람들이 찾는 일군이 되어
오늘은 이렇게 특식까지 차례졌다네

그 국물맛은 좀 맵다
동포들의 높은 요구 담았는가
고기는 향그럽고 은근히 달다

동포들의 따뜻한 정 어렸는가

돈을 주고 구할수 없고
아무나 쉬이 맛볼수가 없는
동포제일주의 유별한 맛
아, 도찌기 은어매운탕

《함께 합시다 ! 》

김 명 혜

무더위도 추위도 아랑곳없이
자전거 타며 따르릉
동포들을 만나러 집집을 찾아가
이야기 나누다가 꼭 전하는 한마디
《함께 합시다!》

아직은 쇠고개인 팔랑팔랑 사나이
내 제자중에서 첫 지부위원장
중급부시절엔 분단위원장 맡아 인기꾼 그
오늘은 동포들을 이끌어갈 책임많은 위원장

아무리 바빠도 지부사무소에 찾아오는
동포들에겐 공손히 인사드리며
상담에도 《머리》끄덕끄덕 의견에도 《귀가》쫓긋
돌아갈 땐 꼭 건네는 말 《함께 합시다!》

사업중에도 런거퍼 올리는 휴대전화
급히 받아 재빨리 달려갈 때마다

쉬엄쉬엄 하자고 걱정되지만
고생이라기보다 보람이라고 웃는다

어릴적부터 교원이던 아버지 등을 바라보며
후대사랑 동포사랑의 고마움이 있어
조직이 부흥해간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난 그는 서슴없이 나선다

동포들과 함께 학습마당 벌려 배워가며
앞날의 구상에 나래펼치며
분회위원들과 함께 분회모임도 다채롭게
행사모임 조직할 때마다 악전고투!

웬일인지 지부행사 당일날엔 언제나 비
동포들은 비남자위원장이라 부르지만
좋아! 비 내린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니
《함께 합시다!》

해바라기밭에서

리 유 실

그는 서있었다
무수한 벼들과 함께 서있었다
해빛을 등으로 받으며
묵묵히 서있었다

해가 오를 때면
우러러 따르다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은
해바라기라 부른다

해가 기울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해가 비추는 곳을 향하여
곧바로 서있는 해바라기들

문득
그리운 사람들 생각이 들었다
노란 웃음으로 이 땅을 물드는
해바라기는 그들의 눈빛을 닮았었다

일흔을 생각하다

서 정 인

1

이른아침에
깨어나는 일흔은
늦잠꾸러기의 흔적도
못 찾아보게 한다

자면서 그려봤던
《오늘》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그 누구도 알수가 없으련만

날새게가 아니라
소중히
시간을 다루고

맵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말을 하라고

자신에게 이른다

하루를

삼년맞잡이로

보내야 할

그런 시기에 이른

일흔이여라

2

잃은 시간이라고 하라

얻은 시간이라고 하라

일흔을,

잃은 물건 많아도

잃는 사람 없도록

잃은 명성 있어도

잃는 인심 없도록

순간순간

가늠해보면서

신심을 잃은 사람
아니되도록

소년들처럼
청년들처럼
나날이
빠짐없이
언제나
노력을 다해야 할
일혼이여라

언 니

허 옥 녀

보고싶은 언니
나의 언니야

고생 많던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우리 동생들을 언제나
어머니처럼 보살펴준 언니

어릴 때 얻은 병이 평생 뒤따라도
자기보다 먼저 동생생각 조카들생각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입으면
그것이 제일이야 기뻐하던 언니

독서며 글짓기 몹시 좋아하고
그림솜씨가 뛰어났던 언니
언니가 그리고 쓴 그림이며 소설
즐기며 보던 일 어제일같아요

고등학교에 가고싶어도
가정사정 먼저 생각하여 꼭 참고
우리들을 높은 학교에 보내주자고
무진 애를 쓰던 언니

하루종일 우산만드는 일 하면서도
분회일 술선 맡아 신보도 배포하고
동네사람들 도와 땀흘리던 언니모습
남을 위해 바침이 마치나 행복인듯

텔레비며 신문에서 나쁜놈들이
우리 나라 욕되게 지껄일 때면
누구보다먼저 격분하던 언니
그때마다 놀랐어요 판사람 같아서

잔소리 많을 땐 싫기도 했지만
지나보면 모든것 우릴 위함임을
뒤늦게야 깨달은것 후회되네요

언니의 사랑에 떠받들리어
이 동생은 집걱정 하나 모르고

가고싶은 한길을 걸어왔는데
고맙다는 한마디 못했었네요

보고싶어요 언니
다시 이야기 나누고싶어요
그리운 언니 나의 언니야

비 개인 날에

리 방 세

비 개인 날에
하늘을 본다
누가 나를 부르는듯
정다운 소리가 들린다
잘 사느냐
고개 들어 다시 쳐다본다
갑자기 곁을 떠난
형 얼굴이 떠오른다
나를 찾으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
당신한테 닿을가봐
손을 내민다
손바닥이 하늘색으로 물든다

내가 앉던 자리

최령화

청소시간

책상을 닦다가 눈에 익은 상처가 하나
《아, 이 책상 내 쓰던 책상이구나》
중얼거린 나의 말에 작은 귀들이 쫓긋
《선생님도 이 교실에서 공부했어요?!》

고개를 들어 새삼스레 교실을 둘러보니
초중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내가 이렇게 작은 책상에 앉아있었구나

이제는 교탁앞에 서는 어색함은 없지만
책상에 앉아 바라보는 교실이
아직은 더 친근한듯

동무들과 소곤소곤 이야기나눈 선생님 책상
그 책상을 끌며 날랐더니 생긴 마루의 상처
놀다가 깨버린 시간표 《산수》 나무판

내가 동무를 만난 교실
우리 말을 만난 교실
꿈을 만난 교실

그리고 지금은 어린 학생들이
동무를 만나고
우리 말을 만나고
꿈을 만나는 교실

내가 앉던 책상에는 그들이 앉고
내가 바라보던 칠판앞에는 내가 서있다

나는 오늘도 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우리 말을 배워간다
《우리 학교》가 나의 꿈을 키워준듯이
내가 학생들의 꿈을 꽃피우게끔

어머니의 코고는 소리

심 달 야

노을이 뉘엿뉘엿 어둠을 끌고오면
가게로 떠나가는 어머니옷자락 잡고
헤여지기 싫다고 울며 어리광부리던
내 어릴적

중급부시절 국어시간 원고지에
《어머니》세 글자 시를 쓰라시던 선생님과
고생 많으시던 어머니사랑
가슴이 먼저 젖어
눈물을 삼키려 었드렸던 수업시간

학창시절을 마치고 교원이 되겠다던
내 꿈을 이루어주시고
가게일로 씬없이 바빠 돌아다니시던
부지런하신 어머니모습

그러다 어느날 문득 깨달았어라
가게에 손님이 많이 찾아온 날이면
깊은 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어머니의 코고는 소리

드렁드렁 숨소리는
나에게도 찾아오는 안도이고 기쁨이었기에
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한
반가운 신호였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들다가
근심을 겨우 덜어드린 오늘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첫 친손자소식에
비로소 어머니의 주름살이 펴입니다

일흔을 넘긴 오늘도
가게로 향하시는 우리 어머니
이제는 곁에서 들을수 없는 소리지만
어머니, 부디 밤마다 편안히 잠드소서

아기의 첫울음소리 다가오는 길목에서
나도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어머니가 걸어오신 깊고 넓은 사랑을 배워갑니다
어머니의 코고는 소리 그리며...

※ (10 년전에 쓴 수필을 시로 옮겼음)

공기봉지

최 유 화

교장선생님께서
조국의 공기를 봉지에 담아오셨다

《평양의 공기를 보내드립니다. 평양호텔 석충근》
차분한 글자가 씌여진 봉지를
두손으로 살며시 쥐여보았다

뽁뽁 묶이운 봉지입을
이제껏 열어보고
조국의 공기를 한숨에 쉬여보고싶었다

눈을 감고 공기를 들이마시면
7년전 찾은 조국을
생생히 눈앞에 그려볼수 있을것 같아서

하지만 나는
차마 봉지를 열지 못했었다

그래서 공기를 마실 대신
봉지안에 담겨진 그리움을 바라보며
가고픈 조국을 그려본다

언젠가 내 조국땅을 밟을 그날
봉지 하나의 공기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조국의 공기를
내 가슴 가득 담아오고싶다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 교원)

마이즈루항(舞鶴港)을 찾아

김 성 순

찌는듯한 더위아래
정히 고개 숙인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귀밑을 흔들리고

어둑 깊숙한 바다속을 누비며
수 많은 혼을 달래인다

모진 파도가 철썩철썩
이 기슭을 칠적

리아스식 해안가는 어느덧
만만송이 현화로 그득하니

분명 물어났었으리
못사람들이 안은 불덩이...

광음(光陰) 여든을 새겨서도
영영 사그라질줄 모름을

자전거

리 일 렬

싱그러운 봄바람이 부는
우리 학교 작은 운동장에
달그락달그락 낮선 소리가 울려퍼진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선생 위해
시골학교 통근길이 힘들세라
아버지회장 새 자전거 끌고왔네

-이거 선생님께...

뜻밖의 선물에 어쩔바를 몰라
처녀선생 거둬 감사인사 드리는데
그는 쑥스러운듯 손 가로저우며

-그럼 이만...

하고 미소지으며 떠나갔다

회장님은 자전거도 없이
천천히 걸어나간다
한걸음 또 한걸음

그가 직접 다녀보았기에 알수 있는
우리 학교 푸른 언덕의 높이
숨가쁘게 오르내린 비탈길의 높이

그는 자전거를 두고왔으나
새 자전거 타고 썩썩 달려가듯
가슴은 한없이 가볍고 흐뭇하였다

또다시 찾아온 그날을 그리며

배 가 나

대학 2학년이던 그날
국립경기장 관람석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제눈으로
조국의 선수들을 보았다

동포응원석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이 파도치며
우렁찬 환호소리 울려 퍼진다
가슴벅차게 차오르던 그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생생한데

교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또다시 찾아온다니
더구나 내가 사는 이곳
아이찌에서 조국선수를 맞이한다니
이 기쁨 어찌 전할수 있으랴!

어쩌면 누구보다 설레는 사람
바로 이 선생님인지도 모른다
학생들과 함께 맞이할 그날
나는 벌써 눈앞에 본다

아직 조국을 가보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조국의 선수들과 마주하며
가슴깊이 조국을 느끼고
뜨거운 마음을 나누게 될 그날

아직 조국에 가보지 못한 우리 학생들
경기장에서 조국의 선수들과 마주하는 그 순간
그리던 조국과 처음으로 만나는
가슴벅찬 상봉이 되리라

조국의 숨결을 느끼며
뜨거운 마음을 나누게 될 그날
학생들의 기쁨과 환호소리가
아이씨의 하늘을 가득 메운다

공화국을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뜨거운 성원이
조국선수들의 힘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은 아이들과 함께 목청껏 웨친다
필승조선 !

게

서 정 인

동그란 어항에
게 한마리
손바닥만 한
바닥의 변두리
빙빙빙
랑다리를 세로 뻗쳐
종일 탈출을 시도한다

힘을 과시할 때 쓰는
오른쪽 집게만 더 큰 수컷
저들의 세상에서도
《왼손잡이》는 적은가보네

붙잡고 매달리는게 없는데도
부지런히 온몸을 잘 써서
혹 유리담장을 넘었다 해도
물은 없어
말라죽을 신세인걸

그래도

주는 먹이만 얻어먹는

어항에서 살기는 싫다는걸가

볼록한 눈깔 부라리며

유리너머 보면서는

지금도 계곡을 그리는걸가

계의 심정 알아볼수는 없어

그저 본능이라고만 하랴?!

무언지 조금만, 조금만

아는듯 마는듯 한데

좀 기다려

김 애 미

이제 집전화 치울가
최근엔 무슨 일이 있으면
전자메일 날아오지
집전화는 좀처럼 울리지도 않고
아니면 수상한 광고전화뿐

좀 기다려
손전화 안 가지시는 시우
나의 안부를 물으며
또 좋은 시를 찾았다고
집전화 울릴거야

나도 시가 생겼다며
부치는 확스
시우의 답변 글발의 글씨엔
시사랑이 차넘치네

손이 많이 간다한들
그런 주고받기가 좋아서
집전화치우기는 좀 기다려
오늘도 시우께서
무사히 댁에 계시길 바라며

8 시 25 분

강 소 원

8 시 25 분

꽃내기교원 나의 아침은
주륜지도로부터 시작을 떼네

잠이 덜 깬 눈 비비며
무거운 자전거 하나 또 하나

비 오는 날엔
치마가락 젖어들고
무더운 날엔 이마에서 땀이 뚝뚝
바퀴에 묻은 흙이
확확 내 다리로 튕겨올 때마다
(아, 귀찮아...)

그래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 둘 하나 둘
무거운 자전거 세우다나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교문에 들어선 학생이

-선생님, 오늘도 주륵지도예요?

환하게 웃으며 툭 던지는 한마디에

무거웠던 손에

다시 힘 들어가고

어느새 입가엔 웃음이 번지네

어제는 귀찮기만 하던 8 시 25 분

이제는 기다려지는 8 시 25 분

학급담임 안 말는 나에게

학생들 만날수 있는 유일한 아침

8 시 25 분

이제는

누가 먼저 인사해줄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또 주륵장으로 달려가네

할배는 1기생 나는야 62기생

허 옥 녀

우리 대학이 창립 70돛을 맞은 봄날
나는야 조선대학교 음악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회에 젖을새도 없이
아침저녁 클라리네트 불게 될줄이야
전체대회 축하공연 준비하느라고요

듣자니 61년전에도 그러셨대요
예술과 1기생이던 우리 할배도
서사시며 대집단체조 성공시키려
낮이나 밤이나 악기를 불며지내셨대요

할배는 1기생 나는야 62기생!
민족교육이 이어준 고마운 음악사랑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뜨거운 마음
《우리》를 꽃피우자는 소중한 마음

오늘도 화요일이면 오사까부청앞에서
우리 학교 지키자 ! 무상화 실시하라 !
악기 불면서 호소하시는 멋진 할배

이제는 내가 고스란히 이어갈래요
동포들에게 힘을 안겨드릴수 있는 음악
나도 계속 배우며 꽃피워나갈래요

할배는 플류트 나는야 클라리네트
두 악기가 어울려 울려퍼지는 그날
나에겐 벌써 보여요
희망찬 그날이 !

-넷째손녀 유화가

소 식

박 태 진

모교를 졸업하고 서른몇해째
시골중학교 동창생 11 명의 그룹라인
메세지가 뜨는것도 년에 수차례뿐

오랜만에 한 녀동무의 문자가 떴다
모교의 보수공사 클라우드펀딩의 링크가 달린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만 협력했어요

짤막한 한줄에 동창생들이
저마다 좋아요 단추를 누른다

그룹라인에 다시 떴다

-링크 확인했다
나도 협력할게

이제는 일본 방방곡곡에서 저마다의 삶을 보내건만
모교를 위해 모아진 자그마한 소식에
평범한 하루가 너무도 뿌듯하다

빨래를 하며

리 려 영

하루일 마친 이 저녁
나는 빨래를 합니다
우리 고장 상표를 단 새 비누로—
스리슬슬 손끝에선 하얀 거품이
무지개빛 아롱이며 절로 일어납니다

쭈만에 쥐여진 매끄러운 파아란 비누가
한번 슬쩍 빨래감을 간지럽히면
모든 얼룩 깨끗하게 절로 집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의 얼룩도
다 가셔지는것만 같습니다

왜 안그렇겠습니까
하필이면 척박한 두메산골에
시집온 엄마를 원망하던 나
이제 크면 철새처럼 뜨고야말리라
목빼들고 도시만 바라보던 나였습니다

저도 몰래 어지러워진 마음에
어찌 열렬한 향토애가 깃들라
허영에 들떴던
그것이 어제날의 내 모습이었으니

허나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내 고향이 어제날의 고장이 아니듯
이제는 병풍산의 이름없는 풀도
진귀한 원료같아 한없이 소중해 집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딛고선 땅이 이처럼 보물산인줄
내 고향의 막돌도 황금처럼 보일 때
진정으로 마음속에 향토애가 깃드는것임을

그렇습니다
향토애란 열에 뜬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모든것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것을 가꾸고 빛내이는 마음임을
나는 오늘 가슴깊이 느껴봅니다

나라의 지방발전정책의 혜택아래
내 고향에 새 공장들만 일떠섰겠습니까
내 고향사람들 가슴마다엔
애국의 기둥들도 함께 솟아났으니
이렇듯 소중한 향토애를
심어주셨습니다

아, 이 저녁 빨래를 하며
수정같이 맑은 물에 내 마음도 씻으며
나는 굳게굳게 속다짐을 합니다
언제나 깨끗한 이 마음으로
내 고향을 사랑하리라고...

(조선거주)

농 악

채 덕 호

이까이노 한복판에서 진행된
우리 학교 운동회
운동장에선 유치반원아들이
장고를 치고 상모를 돌리고
얼씨구 좋다
춤을 춘다
그 모습 보다가
왜 이리도 눈물이 날까
만풍년의 기쁨 노래하는 농악인데...
원아들의 모습 너무너무 귀여운데...
원아들이 치는 장단에 조절로
몸이 움직이고
어느새 좋다!하고 웨치는 이 감정
우리 학교에서만 볼수 있는
농악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역을 살아온
조선사람의 혼이다

108 호 후기

이번 호 20 작품중 5 작품에 《자전거》가 등장했다.
그냥 우연일까? 동포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그들의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시어를 고르고 고른 시인
들의 고심의 결과라고 하면 과한 말이 될가...

복잡다단한 현실속에서 우리 시인들이 창작의 뿌리를
내릴 대지는 어디에 있는것인지?

5 번 등장한 《자전거》를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성)

=====

詩誌 宗 소 리

発行	《宗소리》詩人会		
代表・編集	徐正人	校正	韓誠宇
e-mail	sousakukadai@yahoo.co.jp		
発行日	2026年10月10日 (日本・東京)		

2026 년몯을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지 《중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소리》를 사랑해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연간 1,000 엔의 캄파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리해하시여 협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 チャンギ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關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십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

1 0 8 호